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시온성 대 작전 시작되다

- 감사와 축제 위원회도 -

새 예배당 입성을 앞에 놓고 예배와 교육 프로그램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대망의 시온성 대작전이 돌입되었다. 지난 9월 27일 우리 교회 당회는 새 예배당으로 이전하기 위한 제반 계획을 통과시키고 이를 추진 하기 위한 조지를 완료했다.

우선 주일 낮예배는 지금과 같이 3부로 한다. I부(9시~9시50분)예배는 가족예배(Family Service)로 전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다. 유아부로부터 장년부까지 참여하고 이 예배후에는 30분간(10시~10시30분) 유아·유치·유년·초등부(교육 1부)와 중등·고등부(교육 2부), 그리고 장년 1부(30대), 2부(40대), 3부(50대), 4부(60대), 5부(70대 이상)로 나누어 각각 분반공부를 하게 된다. II부(11시20분~12시30분) 예배는 주일 예배(Sunday Service) 현재와 같이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III부 예배는 청년예배(Youth Service) 젊은이들이 예배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I, II, III부의 예배 순서는 각각 다르게 짜여진다. 찬양대는 가브리엘,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맡게 되며, 새 가족부와 유아부는 I, II, III부 예배마다 모임을 갖는다.

12월 초부터 이전 계획이 추진될 것이다. 이전을 위한 시온성 대작전의 참모장은 오정수 장로, 기획참모로 김광신 장로, 운송참모 박철훈 장

로, 봉사참모 노문환 장로가 임명되었으며, 입당감사를 위해 10가지 행사계획을 추진할 감사와 축제위원회가 발족 되었다. 당회원, 권사회 임역원, 교회학교 부감, 남선교회·여전도회 회장단, 찬양대 부대장, 교구간사로 구성된 감사와 축제위원회는 당회 서기 정병무 장로가 맡는다.

새성전 입당 D-85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성전 입당이 오늘로서 85일 남았습니다. 이는 온 성도의 기쁨이고 자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루가 지나갈수록 더 큰 감격과 감사로 채워질 것이며 어느 누구도 무엇으로도 이 큰 상급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새해 당회조직 발표되다

해마다 10월이 되면 우리교회는 새해의 당회조직을 발표한다. 책임을 맡은 장로는 한달동안 기도하면서 부서를 조직하고 인선작업을 완료하면 11월중에 당회 인준을 거쳐 12월 첫주부터 임명을 받게 된다. 2001년 당회조직은 다음과 같다.

서기 정병무 장로, 예배 최종시 장로, 찬양 김상철 장로, 교육 이영기 장로, 교구 박두호 장로, 전도 왕경래 장로, 선교 김영준 장로, 구제 김태기 장로, 관리 하영수 장로, 재정 윤봉준 장로, 건축 성준경 장로, 동산 윤찬오 장로, 인사 이완형 장로, 10주년 편찬위 임훈규 장로, 출판 노송성 장로, 교회갱신연구원 민순구 장로, 비전 2020 이병생 장로, 감사 성준경 장로
한편 1대 장로 안식년과 세분 장로 은퇴식, 두분 장로 원로 추대식 그리고 제1권사회 회원 은퇴식은 금년 12월 31일(주일) 찬양예배 시간에 갖기로 했다.

다음주 공동의회 연다

당회는 원로 장로 추대건과 목사, 장로 안식년제 규정을 허락해 달라는 두가지 안건을 갖고 10월 8일(주일) 찬양예배후 공동의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갈렙 찬양대 발족되다

상조 위원회(위원장 민순구 장로)는 천국 환송예배 및 하판식 예배를 돕기위해 갈렙찬양대를 조직키로 하고 이보우 집사와 백정순 집사가 각각 지휘와 반주를 맡게 했다.

교육부서 방배정 완료하다

우리교회 교육부서가 5부로 나뉘게 된다. 18개 부서로 된 각 부가 사용할 방은 다음의 표와 같다.

교육부서	해당부서(예배장소)
교육 1부	유아부(402, 404), 유치부(706), 유년부(602), 초등부(702)
교육 2부	중등부(501), 고등부(601)
교육 3부	대학부(501), 청년부(101), 새가정부(602)
교육 4부	사랑부(102), 예배다부(702), 새가족부(603), 영어반(601)
교육 5부	1. 30대(703, 704, 705)
	2. 40대(606, 607, 608, 609)
	3. 50대(701)
	4. 60대(102)
	5. 70대(101)



2000 사명자 대회 8일 발대식

- 새술은 새부대에 -

2000 사명자 대회가 오는 주일(8일) 찬양예배시 발대식을 갖고 11월 26일까지 50일간 실시된다. 교회설립일전 50일간 국가와 민족, 교회를 위해 연속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는 사명자 대회는 새 예배당 입당을 앞에 놓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씀을 표어로 하고 7대 기도 제목을 갖고 중보기도, 다니엘기도, 말씀읽기, 불신가족 이웃초청 전도 잔치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성경 : 이사야 40장 27~31절



이중운 목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유대민족은 하나님을 앙망하고 낙심치 말 것을 교훈합니다.

1. 백성들은 물만에 빠지지 말고 낙심치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줄 생각하고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구나' (27절).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 가장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낙심하고 풀쩍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큰 다윗도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 13:1)라고 하였고 예레미야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애 3:2-3)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원통한 것(내 송사)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수락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마음이 들 때 성도는 원망과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낙심할만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까운 때이다' 라고 했고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속히 성취하여 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간절히 원하도록 하시려는 까닭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가셔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께만 부르짖게 하시어 마침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이사야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서 벗어난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한 후 하나님은 너희를 잊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한 너희를 잠시 연단케 하신 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2. 여호와 손이 누구신 줄 알라

문제가 해결 되려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에게만 있도록 된 것은 하나님의 지혜며 사랑입니다. 만일 우리 자신에게 힘이 있다면 그것은 오래지 않아 없어질 것입니다. 육체의 힘이나 세상의 세력은 그 소유한 사람이 쇠잔해질 때 상실됩니다.

영적 능력도 그 원인이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이 변하거나 쇠할 때 없어집니다. '역발산 기계세'라고 하는 항우의 힘이나 독재자 스탈린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영원하시고,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공간적으로도 영원하십니다.

'피곤치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연약한 자를 소생시키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 (28, 29절)은 전지전능하시고 없는 것 중에서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1)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가 전능하심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부족함이나 쇠퇴함이 없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므로 그의 완전하심은 무한합니다. 또한 날의 시작이나 생의 끝이 없으므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는 구원을 설계할만한 지혜를 갖고 계시며 그 지혜는 모자람이 없고 그의 명철은 한이 없으시고 피곤치도곤비치도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2) 강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은 피곤하고 무능한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을 받게 되면 영혼은 날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이는 것은 믿음을 크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3.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31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맡기는 자는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음의 세 가지 경험을 얻게 될 것입니다.

① 새 힘이 솟구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새 힘이 솟구치는 이의 모습으로 독수리를 비유했습니다. 털갈이를 한 독수리는 모양도 새롭게 되고 육체의 힘도 새로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얻을 것이며 새로운 기회와 신선한 기쁨이 부여될 것이며 하나님은 아첨마다 그의 팔이 되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할 힘과 싸울 힘과 견딜 힘을 얻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치솟아 매우 강하게, 매우 빨리, 매우 높이 하늘을 향해 독수리처럼 은혜의 힘으로 가장 거룩한 곳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② 달음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즐겁고 민첩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됩니다.

③ 걸어도 피곤치 아니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여 하나님과 은혜로운 대화를 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족히 여기고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뜻을 이루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말씀의 조명을 받고 환한 빛 속에서 걸어가시는 사람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은 것은 그들이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앙망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85회 총회를 다녀와서

- 우리 교회 사명 다시 확인한 기회 -

박철훈 장로(11교구)

‘임하소서 성령이여! 하나되게 하시고 증인되게 하소서’라는 주제하에 교단 총대 1,500명이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 소망교회당에서 모였다.

이번 총회는 다른때와 달리 교회 분열과 일치를 위해 분열된 15대 장로교회 총대들이 한 자리에서 각 총회의 개회 예배를 연합으로 드린 것이 특징이다.

이번 총회 실황이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생중계 되었고 투·개표 과정도 OMR카드를

이용한 전자집계 방식을 사용해 새 천년 총회다운 면모를 과시한 총회였다. 전체 총대중 15명 결석으로 놀라운 참여율을 보인 총회에서 박정식, 최병두 목사가 각각 총회의 정·부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수많은 안건 처리도 중요하지만 감사한 것은 전국 교회가 사용한 주제 선정 및 해설집 집필을 우리교회 이종윤 목사님이 하신 것과 84년 동안 사용해 온 회의록 기록법에 획기적 변화를 이 목사님 발언으로 시정케 된 점

이다. 지금까지 회의중 아무개씨로 호칭해 온 것을 이제부터는 이름뒤에 성직을 사용케 하자는 것이었다.

그보다 가슴을 조이면서 회의를 지켜보는 가운데 2000년 장로교 신앙고백서를 통과시킬 무렵 이 목사님은 신학적 문제를 제기하시어 1년간 더 연구하도록 한 것은 한국교회를 위해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시중 기도와 말씀앞에서 회무를 처리하고 전국 교회의 부흥과 사회 변혁을 위해 노력한 총회로 평가받아 마땅 할 것이다.

단군상 철결 문제를 결의할 때에는 모든 총대들이 순교자라도 된듯 강경한 자세를 보였다. 우리 총회가 복음적 신앙을 파수하고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면서 보고를 마친다.



2000년 청년부 헌신예배

새성전 시대를 바라보며

손재영 (청년부 회장)

작열 하던 태양, 무섭게 몰아치던 태풍의 계절이 가고 어느덧 2000년 한해도 결실을 바라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새성전 새시대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있기에 어느 해의 수확보다 더욱 풍성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부는 이번 헌신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헌신, 몸 된 교회에 헌신, 지체들에게 헌신, 민족과 사회에 헌신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온 교회는 주님이 허락하신 새시대의 역사에 많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청년부도 교회의 작은 한 지체로서 사용해주실 은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성전 시대에 작지만 주님께 붙들린 비전의 사람들로 살기 위한 청년부의 비전과 꿈을 소개합니다.

첫째, 청년부는 생명을 건 예배, 살아있는 말씀, 뜨거운 기도, 감동적인 찬양, 진실한 교제의 다섯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과 기도에서 주님의 임재를 맛보며,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지체들의 삶을 끌어안는 살아있는 공동체. 비단 청년부의 회원만이 아니라 이 시대의 백함 받은 젊은이라면 누구라도 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 이것이 새 성전 시대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청년부의 비전입니다.

둘째, 살아있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세상문화 속에서, 자신을 추스려 정결함을 지키고, 구별된 자들로서 강남의 땅 곳곳에 생명 되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청년부의 비전입니다. 현재 청년부에는 교사 선생님 10여분과 청년회원 60여명이 출석하고 있으며, 이 중 40여명의 지체들이 임원 및 임직원, 교사로 각종의 섬김의 자리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사 선생님 10여분과, GBS 조장 8명, 새가족 스텝 9명, 새가족부와 GBS 사이의 기초GBS 5명 등 말씀 양육체계의 확립에 중점을 두어 30여명의 양육사역자들을 확보, 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새성전 시대에 몰려들 강남의 젊은이들을 섬기기 위해 전회원이 사역자라는 자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셋째, 청년부는 사랑하는 서울교회 내에서, 세대간을 잇는 다리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국가간의 차이, 계층간의 차이보다 세대간의 차이가 더 심하다고 하는 이 세대에 기성세대와 다음세대의 갈등요소를 완화시켜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기성세대의 권위와 믿음을 존경하며, 그 삶을 본받아, 오는 세대의 말형으로서 봉사과 순종, 믿음의 본을 보이겠습니다.

이로써 온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써어지는 밑알의 삶. 이것이 청년부의 비전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청년부는 총회원 중 75%

가 타부서의 봉사자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가브리엘, 할렐루야 등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고등부, 중등부, 유년부, 탁아부, 사랑부 등 교회 학교의 교사로 섬기는 등 다음세대의 영혼들의 영적 어미, 아버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더욱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린 시절부터 믿음과 경건의 훈련을 거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청년의 열정을 인내의 시간 속에서 성숙한 인격으로 가꾸어 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시는 영성과 주신 비전에 헌신하는 노력의 삶을 조화시키겠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믿기에 어느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부르시든 순종함으로 삶을 드릴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이 되겠습니다. 기대하는 만큼 성장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작고 연약한 공동체이지만, 끊임없는 기도와 사랑 넘치는 기대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암송대회 임박하다

해마다 사명자대회 기간중 실시하는 성경암송대회 날짜가 다가오고 있다. 올해는 마 5장~7장(산상보훈)을 암송케 된다. 교회학교 예선은 10월 29일(주일)부터 11월 4일(토)중에 부서별로 진행한다. 본선은 11월 5일 거행하되 최우수자는 찬양예배시 암송 시범을 보인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김홍분(새가족부)

남편과 저는 갈등과 번민의 나날로 살아오던 중 어느날 서울교회의 어느 집사님의 권유로 등록한지 이제 한달이 넘었습니다. 새로운 처소에 입학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첫날의 이중윤 목사님의 설교말씀은 웅크려진 마음을 열게하는 강한 메시지였고, 말씀은 뼈속까지 전율케 하는 것이어서 첫시간, 첫예배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실로 안내되었을 때에는 방금 나의 영혼을 들여다보듯이 말씀을 증거하셨던 목사님께서 새 신자마다 사랑으로 기도해주시고 활짝 웃으시는 모습과 함께 사진도 찍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새가족부 교육실로 인도되었는데,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 초청된 새가족들과 선생님들이 나타나되어 어우러지는 또 하나의 은혜로운 시간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교육이라는 딱딱한 고정관념

을 벗어나 훈훈함과 따스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찬송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를 부르는데 그동안 무언가에 쫓기고 억눌렸던 감정들이 풀어지고 사랑의 주님 품에 의지하여 쏟아내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면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전도사님의 가르치시는 말씀 또한 주님 나라에 임하는 자세와 초행길에 위반하지 않도록 그냥 지나치기 쉬운 신앙인의 자세 등을 바로 지적하여 주셔서 그간의 내태함을 뉘우치게 하는 신선한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끝으로 자기소개와 환영의 시간을 갖고 첫날의 교육을 마치고보니 새신자들이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묵묵히 봉사하시는 새가족부 선생님들께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오는 감사와 "화이팅!"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나오고부터 가정에 평안이 찾아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먼저 서울교회

에 등록한 남편은 수개월 전, 사내 문제로 직장을 잃고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부부는 알게 모르게 언쟁과 부조화를 경험하며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상대방이 달라지기만을 바라는 등 상처가 될 뿐인 핵심없는 싸움으로 기쁨을 잃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등록 후 교회 건축 공사현장에 나가 봉사하곤 하였습니다. 8월의 무더위 속에 일을 하면서도 늘 밝은 표정을 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전을 짓는데 일조를 했다는 보람을 느끼며 은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교회가 날이 그렇게 기다려 질 수가 없습니다. 상계동에서부터 교회까지 가는 동안 남들처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어느새 서울교회에 도착해 있습니다. 웬지 서울교회에서 우리 부부에게 사랑의 화단을 잘 가꾸려는 과제를 주신 것 같아 우리는 예쁜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새가족부에서 한달 내내 외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라는말씀을 붙잡고 지난날 모순과 절망의 어둠에서 희망의 새벽을 여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족을 붙잡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그리는 자화상



박경희 권사(3교구)

매주 화요일이면 새벽기도회가 끝나고 6시부터 403호실에는 말씀의 거울에 비쳐진 자화상을 그려보는 학생들이 모여든다.

모두의 마음속에서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픈 마음이 있고,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자하는 갈급한 심령임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다. 오랜 믿음생활을 자부하면서도 세상에 살아갈 때, 신령한 보화보다 속된 것에 묻혀 떠나려가는 자신을 발견한다. 또한 하나님과 나 자신의 관계정립이 분명치 않은 것이 너무나 많음을 보게 된다. "고멜"에 진배없는 나 자신이건만, 회절한 무덤과 같이 가장 정절하고 멋뻐하다고 뽐내는 우리들이 아니던가... 다시한번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부정한 나 자신을 그려보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정립의 보화같은 한시간이었다.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말씀으로 조명할 때, 부끄러움과 아울러 감사와 회개가 가슴마다

메아리치는 보배로운 귀한 시간이라고 감히 단언하고 싶다. 제한된 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말씀을 열정적으로 쏟아 부을 때 심령골수를 파고 드는 말씀으로 "아멘"이 연발되었으며 또 수감하는 모든 자들은 순전한 자화상을 그려보는 기회가 되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됨을 분명히 하여 말씀의 반석위에 세움받는 우리가, 아니 내가 되어지기만을 바라며 열심을 다해 보려 한다.

이론적 무신론자인 이방인보다 더 악한 실제적 무신론자로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 달려갈 뿐이다. 말씀의 무장을 통한 승리의 삶이 약속되어 있건만 게으름과 교만이 뒤섞여 아직도 등록지 않았신 모든 성도들은 자신을 채찍질하는 마음으로 성경대학에 등록하셔서 귀한 말씀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랄 뿐이다.

■ 동정 ■

- 이중윤 목사는 2일 연세 조찬 기도회에서 설교한다.
- 3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리는 한·일 목회자 세미나에서 특강한다.
- 5일 강남 시찰회에서 설교한다.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금주 식사제공 가정

: 정무균 집사, 이영희 권사 가정

☑ 건축현장 방문팀

: 청년부- 2일(월) 새벽기도회 후 새 예배당 건축현장 방문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2. 살롬경도대학 · 서울성경대학 · 목회자신학세미나 위해
3. 복음화된 통일조국 건설을 위하여
4. 가정과 민족사회가 평안하도록

† 예배 및 집의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9시
새 벽 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